40절의 숨겨진 역사 - 제34편

에스겔 제15편

Jeff Pippenger
2026-10-28

감추어진 다섯 달

조시아 리치는 1838년에 10절에 나타난 이슬람의 기별을 15절에 명시된 기간과 연관지어 제시하였다. 당시에는 리치에게 감추어져 있던 예언의 요소들이 있었다. 1840년 8월 1일에 이르러 리치는 1838년 이후 "다섯 달"의 기별을 통해 자신에게 계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 상세한 해설을 출판하였다. 1838년에는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다섯 달"의 기별 중 일부가 리치에게 감추어져 있었다. 다섯 달 예언의 감추어진 부분은 1840년 이전에 그 봉인이 풀려 리치에게 드러났으며, 이 봉인이 풀림으로써 1840년부터 1844년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5절에 나오는 다섯 달은 2026년까지 감추어져 있었다. 엘리사벳이 다섯 달 동안 숨어 지내다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마리아가 그녀와 함께하였다. 마리아는 다섯 달 동안의 은둔을 열 처녀의 비유와 연결해 준다. 엘리사벳과 달리 마리아는 임신한 처녀였고,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임신부였기 때문이다. 두 경우 모두 나름대로 기적적인 출산이었지만, 마리아는 처녀였다. 모든 선지자는 세상의 종말에 관해 말하며, 마지막 때에 마리아로 표상되는 처녀들은 셋째 천사의 빌라델비아 운동을 이루는 다섯 슬기로운 처녀로서, 그 수는 십사만 사천 명이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다섯 달 동안 숨어 지낸 뒤인 여섯째 달에 만난다. 5절에 나오는 다섯 달은 2026년까지 감추어져 있었다.

요한이 태어나자 마리아는 나사렛으로 돌아갔고, 사가랴는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마리아는 일요일 법령 때 문이 닫힐 때까지 엘리사벳과 함께 있었으며, 그때 예언이 말한다. 사가랴는 말을 못 하게 되는 알파 이정표인 동시에, 아들이 태어날 때 말하는 오메가 이정표이다. 사가랴는 시작과 끝에 있으며, 첫째 천사와 셋째 천사를 모두 표상한다. 엘리사벳은 둘째 천사의 기별이며, 마리아는 다섯 달 동안 숨어 지내는 기간이 끝날 때 엘리사벳과 합류하는 밤중 소리의 기별이다.

노아의 여덟 식구는 다섯 달 동안 방주 안에 감추어져 있었고, 그 후 방주는 아라랏산에 안착하였다. 밤중의 외침은 엑서터에서 둘째 천사와 합류하여 1844년 10월 22일에 문이 닫힐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이로써 열 처녀의 비유가 성취되었다. 마리아는 엑서터에서 엘리사벳과 합류하여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함께 머물렀다.

1838년에 리치에게 감추어졌던 기별은 "다섯 달"의 기별이었다. 다섯 달이 감추어진 일은 방주 안의 여덟 사람으로 표상되며, 그것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뒤 첫 다섯 달 동안 몸을 숨긴 일이다. 이는 주님께서 1838년에 그 다섯 달을 손으로 가리고 계시다가, 그 다섯 달에서 손을 거두심으로써 리치가 그 성취 열흘 전에 그 날짜를 공표할 수 있게 하신 일이었다.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들에 다섯 달의 기별의 봉인이 풀릴 때, 여러분은 1844년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엑서터 야영 집회의 엿새에 이르게 되며,

그 뒤로 1844년 10월 22일의 닫힌 문에 이르기까지 66일이 이어졌다. 모두 72일이었으나, 이 날들을 예언의 선상에 놓고 그 이정표들을 따로 분리해 보면, 엑서터 야영 집회로 표상된 포위의 표징은 엿새였으며 그 뒤로 닫힌 문에 이르기까지 66일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예언적으로 그 기간은 6 6 6으로 표상된다.

엑서터에서 10월 22일에 이르는 기간으로 표상되는 포위의 역사는 가인의 여섯째 세대인 라멕으로 표상된다. 다섯 달에 관한 예언의 인봉이 풀린 직후에 문이 닫힌다. 문은 점진적으로 닫히지만, 재림교의 경우 그 과정은 9/11에 시작되었으며 포위 때에 끝난다. 포위가 닥치면 여러분은 가인의 계보에 속한 라멕이나 셋의 계보에 속한 라멕 중 어느 한 사람의 품성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가인의 계보에 속한 라멕에게 해당하는 그 역사의 수는 6 6 6이며, 셋의 계보에 속한 라멕과 승리한 교회에 해당하는 수는 7 7 7이다.

두 라멕과 666 또는 777로 표상되는 두 품성의 발현은, 재림교인들이 내슈빌의 불덩이들에 대한 경고에 왜 침묵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면서 재림주의에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들과 더불어 시작된다. 격화되는 논쟁은 동물들이 경사로를 올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예표되었던, 머지않아 도래할 일요일 법령의 닫힌 문에 앞서 나타나는 시각적 실증이 된다. 점차 고조되는 이 시각적 경고는 엘리야의 갈멜산 경험과 1844년의 밀러파 운동으로도 예표되었다.

포위전의 예언적 구조

도시의 멸망으로 끝나는 포위전의 예언적 구조는 표징으로 시작하여 표징으로 끝나는 한 기간을 나타낸다. 이는 하나의 기간과 하나의 시점을 나타낸다. 우상이 형성되는 기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된다. 영감받은 증언에 나오는 이러한 성격의 모든 예언적 구조는 짐승의 표로 절정에 이르는, 짐승의 우상에 관한 시험 기간을 예표한다.

> "'짐승의 우상'은 개신교회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가 권력의 도움을 구할 때 형성될 배교한 개신교의 형태를 나타낸다.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아직 그 의미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45.

그 기간은 짐승을 위한 우상, 곧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형성되어 오던 그 우상이 일요일 법령을 선포하여 성립시킬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짐승의 표가 강제된다. 로마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느부갓네살을 통해 예표되었다. 바벨론이든 로마든, 포위 공격의 구조는 말세의 북방 왕을 강조하고 있다. 1333년부터 1337년까지 이어진 오르한의 포위 공격과 1449년 7월 27일부터 1453년 콘스탄티노플 포위 공격까지의 4년은 1840년 8월 11일부터 1844년 10월 22일까지의 기간을 예표할 뿐 아니라, 이 포위 공격들은 성경 예언에 나오는 동풍의 자손들로서 이슬람이 수행하는 역할도 강조한다. 북방 왕(바벨론 또는 로마)과 동풍이라는 주제는 다니엘서 11:45에 나오는 "동방과 북방에서 오는 소문"이다.

>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그를 번민하게 할 것이므로, 그가 크게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사람을 도륙하고 진멸하려 할 것이다. 다니엘 11:44.

1449년 7월 27일부터 1453년 콘스탄티노플 포위전까지의 4년은 4년이라는 기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1448년 요안니스 팔레올로고스의 죽음과 함께 고려하면 5년이라는 기간으로도 표현된다.

이 구조는 예루살렘의 두 차례 멸망과 노아의 홍수에 모두 나타난다. 이 구조는 애굽의 첫 유월절에도 나타나는데, 그때에는 멸망시키는 천사가 문에 있는 피의 표징을 보아야 했으며, 그 문은 동풍이 풀려나고 물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문을 닫을 때까지 바로와 그의 군대를 바다로 이끌었다. 이 구조는 313년부터 321년의 첫 일요일 법령까지 이어지는 버가모 교회의 알파 역사에 나타나며, 533년 유스티니아누스의 칙령부터 538년의 일요일 법령까지 이어지는 버가모의 오메가 역사에도 나타난다. 버가모의 경우, 그 표징은 포고령 또는 칙령이지만, 둘 다 일요일 법령에서 절정에 이르는 기간의 시작점이 된다.

에스겔의 예루살렘 포위와 멸망의 구조는 기원전 587년부터 기원전 586년까지에 걸쳐 있었다: 기간을 포함식으로 계산하면 2년이고, 제외식으로 계산하면 1.5년이다. 예언의 또 다른 포위 구조 역시 기원전 200년의 파니움 전투와 기원전 198년의 시돈 포위전을 포함하는 파니움 전역에서 2년이라는 기간으로 나타난다.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라멕의 죽음, 요한네스 팔라이올로고스의 죽음, 그리고 파니움 전투와 대응한다.